

전남 쌀 재배면적 24% 신동진·새일미 '퇴출 위기'

정부, 다수확품종 공공비축미 제외 해당 품종 재배농가 경제적 타격 전남대표쌀 '풍광수토' 브랜드 타격 전남농협 "기간 유예 건의하겠다"

정부가 쌀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해 다수확 품종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 전남도내 24%를 차지하는 '신동진'과 '새일미'가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최근 2010년 이후 육성된 고품질(기호성·내병성·내재해성) 품종의 공급 비율을 오는 2025년까지 50%까지 확대하는 대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다수확 품종은 보급급 공급 대상에서 대폭 감축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폭락을 예방하기 위해 10a당 570kg 이상 생산되는 다수확 품종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자 공급도 중단한다는 방침에 전남지역 다수확 품종 재배 농가들의 직접적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의 지난해 벼 재배 및 생산 현황에 따르면 도내 벼 재배면적은 총 15만 4679ha로 이중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3만900ha)과 새일미(6100ha) 품종은 각각 20%와 4%를 차지한다.

전남도의 쌀 재배면적의 50%(7만 7000ha)를 차지하는 품종은 '새청무'다. 새청무 다음으로 많은 재배면적을 차지하는 품종은 신동진으로 지난해 도내 쌀 생산량의 74만3000톤 중 14만8000톤(19.9%)을 차지했다.

품질이 좋고 수확량이 많아 인기가 높았던 다수확 품종인 신동진이 퇴출되면 쌀 재배 농가의 불편이 예상된다.

현재 도내 22개 시·군 중 신동진(10개 시·군)과 새일미(3개 군)를 공공비축미 고품종으로 선정한 13개 시·군은 이번 정부의 방침으로 오는 2024년부터 새청무, 강대찬, 조명1호 등으로 매입 품종을 전부 바뀔다.

전북의 반발이 가장 거세다. 신동진이 전체 쌀 재배 농가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전북 농가의 경우 "갑작스러운 주력 품종 교체는 무리"라며 정부에게 5년 간의 유예기간을 공식적으로 건의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전남농협의 대표 브랜드인 '풍광수토'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도 우려된다. 풍광수토는 2017년부터 신동진을 주력 품종으로 내세우고 있다. 게다가 신안, 진도, 화순(이상 신동진), 영암, 해남, 화순(이상 새일미) 등지는 공급이 중단될 품종으로 현재 상품을 출시하고 있는



4년만의 대면 졸업식

동신대학교 2022학년도 전기 학위 수여식이 22일 4년만에 대면으로 열린 가운데 졸업생들이 축하 띠를 걸고 학사모를 하늘로 던지며 졸업을 축하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상황이어서 유통 변화에 따른 농가의 경제적 타격도 예상된다.

전남도의 경우, 일찍이 지난 2020년 신동진을 개량한 강대찬 품종을 보급해오면서 큰 피해는 면했다는 설명이지만 농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홍보 활동과 새 품종에 대한 영농 지도 등도 강화되어야 한다

는 지적이다.

전남농협의 경우 풍광수토의 브랜드 이미지 타격 및 신동진쌀 출시 농가의 경영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전남도와 함께 정부 측에 공공비축미 품종 유지를 공식 건의할 계획이다.

전남농협 관계자는 "신동진 품종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농립 축산식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며 "신안, 진도 등에서 여전히 신동진 상품을 출시하고 유통되는 만큼 해당 농가들을 대상으로 최종포 단지를 마련해 종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3면 최황지 기자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경쟁률 광주 2.7대1, 전남 2대1

시 49명·도 362명 등록

3월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광주·전남 후보접수 마감 결과 총 411명이 등록을 마쳤다.경쟁률은 광주 2.7대1, 전남 2대1로 집계됐다

22일 광주·전남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이날 광주 49명, 전남 362명 후보가 등록했다. 광주 18곳, 전남 182곳 등 총 200곳의 조합장을 선출한다. 광주는 2.7대1, 전

남은 2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23일부터 선거일 전날(3월7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22일부터 25일까지 해당 조합이 정하는 기간에 조합에서 지정한 열람장소를 방문하면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주요 선거정보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특집 홈페이지(<https://www.nec.go.kr/site/jvt/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해나 기자

이낙연 "예정대로 6월 귀국... 늦어지면 억측"

김대중 전 대통령 추모식서 밝혀

정치권 일각에서 조기 귀국설이 불거지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예정대로 오는 6월 귀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1일(현지시간) 조지워싱턴대에서 강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귀국 일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6월 중"이라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부터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미국에 머물렀다.

오는 6월은 방문연수 기간인 1년을 채우는 시점이다.

이 전 대표는 4월 중순까지 필라델피아 유엔대를 비롯해 휴스턴대, 콜로라도 주립대 등에서 강연 일정을 이어갈 예정이다. 뉴욕 한인모임 및 휴스턴 아시아계 공동체·교민 모임, 로스앤젤레스(LA) 교

민 단체를 상대로 강연한다.

이 전 대표는 5월께 독일을 방문해 튀링겐대와 베를린대에서 강연 일정을 소화한 뒤 귀국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미국 이후 구체적인 독일 체류 기간을 묻는 질문에, "그렇게 길게 있을 수 있겠나"라며 "만약 늦어지면 또 억측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했다.

억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귀국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시간이 허락된다면 (구)동독 쪽을 보고 싶다"라고 덧붙였다.

워싱턴=뉴시스

www.kepco.co.kr

연간 전기소비량을 10% 절약하면, 에너지수입액의 7%를 절감하고 무역직자는 약 60%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22년 상반기 전력소비량 기준)

"내가 아껴줄게"

나는 지금 지구의 내일을 지키는 중!

에너지를 절약하는 우리의 작은 실천이 지구의 내일을 위한 위대한 힘이 됩니다

- 내일을 지키는 10가지 방법!
1. 겨울 실내온도 18-20℃ 지키기
 2. 실내에서도 따뜻하게 입기
 3. 전기 난방기 사용 자제하기
 4. 전기장판 온도 낮게 조절하기
 5. 전력피크 시간대 전기 사용 자제하기
 6. 냉장실은 비우고 냉동실은 채우기
 7. 고효율 조명 쓰기
 8. 빈 방의 전등 끄기
 9. 에어컨 플러그 뽑기
 10. 안 쓰는 멀티탭 끄기